지역 메아리

부안군, 신운천 산림조경숲 완공

부안군은 군민들의 걷기운동 등을 유도하고 사회적 교류를 증대시켜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해 이달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3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889㎡에 야외운동기구, 산책로 등 휴게시설과 수목류 소나무 외 17종 3837주를 식재했다.

특히 다양한 야외용 운동기구와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동과 휴식을 겸하도록 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속에 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관내 뱀장어 양식장 미승인 물질 사용 전수조사

"풍천장어 명성 회복에 최선을"

고창군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뱀장어 양식장에서 유해약품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소비자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오늘(25일)부터 관내 뱀장어 양식장 74곳에 대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며 "미승인 약품 발견시 압수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언론보도 직후 관내 뱀장어 양식장 대표와 관리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선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방안과 사용 금지약품 설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관내 수산물 신뢰를 실추 시킨 사안에 대해 위판배제, 정부지원 및 경영자금 대출 제한, 불시 안전성검사 이행 등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면서 업계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의 명품 수산물을 믿고 찾아주시는 소비자들에게 실망감 안겨드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며 "신뢰받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한국인의 스테미너를 책임지는 풍천장어 명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환경교육 발전에 앞장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전북 최초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

'고창군 유네스코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전북 최초 지역 환경 교육센터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지도자 양성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고창군의 뛰어난 생태자원과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제작 및 보급 ▲전문 인력양성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역내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 국가지질공원 등 천혜의 환경과 교육을 접목시켜 체계적인 생태환경 교육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앞서 고창군은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월 전라북도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 지정 절차를 거쳐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전북도내 최초다.

고창군은 지난해 4월 청정한 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상 2층 규모의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건립 운영중에 있다.

고창군 생물권보전팀 정국진 팀장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전라북도 환경교육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사업 연계 시책발굴에 최선을"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연계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5일 열린 3월중 연석회의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 최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며 "재생에너지사업 등 7대 중점과제와 2023 세계잼버리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2단계 개발 구상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개발청의 업무계획 등을 신속하게 분석해 적극 대응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연계 시책발굴에 노력해 달라"며 "2단계 기본계획 수립시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등 부안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정부가 올해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부안군도 각 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축제는 장소를 옮겨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군민과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유진섭 시장)가 25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유진섭 위원장을 비롯해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분야의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조례에 의거해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관련 시책과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3대 국책연구기관장과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하고 다목적전자선실증센터와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준공 등 첨단 과학산업 R&D 기반구축과 연구역량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기술창업 촉진과 미생물 활용 사업, 동물의약품 산업 등 연구기관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원회는 정읍이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농생명 융복합 산업 등 유치와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향후 우리시 과학기술 발전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과학기술산업 발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유진섭 정읍시장 ◇위원 = ▲황혜숙 정읍시의회 의원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한수철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 연구본부장 ▲김대혁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장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원일 전북대학교 수의면역학 교수 ▲이은경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류일주 이원컴포텍㈜ 대표이사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당연직)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최근 내장상동 사랑병원 뒤에 위치한 왕솔밭 공동체 정원에서 정원 내 텃밭 임대 분양자, 공동체협회와 함께 텃밭 개장식을 가졌다.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농사의 즐거움 느껴요"

정읍시, 왕솔밭 정원 텃밭 개장

정읍시가 최근 내장상동 사랑병원 뒤에 위치한 왕솔밭 공동체 정원(정읍시 하신경 9길 33)에서 정원 내 텃밭 임대 분양자, 공동체협회와 함께 텃밭 개장식을 가졌다.

개장식은 신나는 고고장구의 신명나는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퇴비 시삽과 농기구 전달식, 벨리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진행됐다.

퇴비 시삽은 시민 어른 대표 이창석씨와 어린이 대표 김정훈군이 유진섭 시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밭에 퇴비를 뿌리고 일년 농사가 풍요롭게 이루어지도록 기원했다.

왕솔밭 공동체 정원은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선정 됐다. 이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면적 6,281㎡의 공동체 정원을 조성했다. 공동체 정원에는 친환경 텃밭과 어린이 놀이터, 야외 교육장, 원두막 등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텃밭은 1개소 당 8㎡(2.4평)으로 총 60개소를 분양한다. 57개소는 정읍시민에게 분양해 작물을 재배하고 나머지 3개소는 공동체 협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도심 속에 텃밭을 마련해 시민이 농사의 즐거움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벚꽃 만발한 정읍천변으로 오세요'

자생화 전시회 · 페스티벌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15회 자생화 전시회와 제8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벚꽃이 만발한 정읍천변에서 열린다.

개관식은 벚꽃이 핀 정읍천변에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랑나비와 노랑나비, 흰나비 등의 방사가 이뤄지는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생화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자생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꽃들을 보다 친숙하고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회에는 비비추와 노루귀, 앉은부채 등 50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멸종위기의 야생화들인 파초일엽과 복주머니란, 광릉요강꽃 등 20종의 희귀 자생화 특별전시도 준비돼있다.

자생차 페스티벌은 황토현다원과 현암다원, 태산명차녹차 등 9개 업체가 참가한다. 이들 업체는 황차화 여주, 구절초, 알로에차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차류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시음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트릭아트(Trick-Art)를 이용한 포토존과 행사장에 조화되는 D/P도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생화 전시회와 페스티벌을 벚꽃축제와 연계해 지역 자생화와 자생차를 전국에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